

현대 한국의 在家 불교운동

鄭柄朝*

I. 概觀

해방 이후 한국불교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在家 불교운동의 확산이다. 도심의 포교당이 늘어가고, 在家法師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사회사업 등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과거의 불교운동은 사찰에서의 佛供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불교적 관심을 지닌 이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의 불교운동은 더 이상 불교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될 수는 없다. 불교교리의 현실적 응용과 적용의 차원은 필수적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불교계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것은 '불교 현대화'의 문제였다. 이들 논의의 초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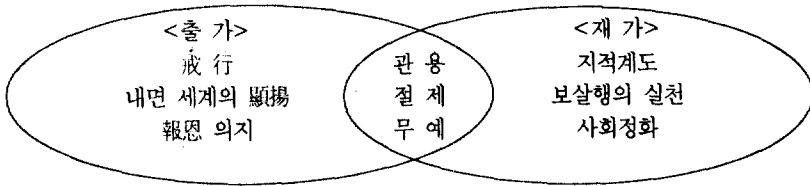
- (1) 승단 조직제도의 개혁 : 불합리한 조직, 행정여건 등을 개선하여 현대 사회에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 (예컨대 본사 중심제 등)
- (2) 승단 운영에 대한 信徒 참여의 문제 : 비구승 위주의 종무원 행정조직에 비구니 및 일반 신도들의 참여폭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
- (3) 불교교육 전담기관의 육성 : 중앙승가대학을 비롯해 지방 강원(승가대학)의 획적 연계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4) 불교의례의 현대화 문제 : 陀羅尼 위주의 念佛·讀經·기도의례를 우리말로 읊기거나, 찬불가를 보급하는 등의 문제
- (5) 계율에 대한 새로운 해석 문제 : 농경위주적이고 전통묵수적인 계율을 과감히 大乘的으로 수용·실천해야 한다는 주장

* 동국대 교수, 불교철학

II. 出家와 在家의 位相 재정립 문제

현대한국의 불교운동을 出家와 在家로 나누어 분석한다면 각각 상이한 사상적 책무가 있다. 재가 불교운동의 경우, 불교원리를 탐구하려는 學的 태도와 그 원리를 다변화된 사회 속에 전개할 수 있는 실천의지이다. 반면 출가의 경우에는 修道的 청정기풍의 확립이다. 즉 청정한 戒行, 보다 高揚된 내면세계의 顯現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의지가 사회적 양심의 보루로서 집합·전개되어야 한다.

불교교단은 그 사상적 특성상 출가와 재가를 엄격히 구분하여各自的 位相을 정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미래 사회에서는 이 두 그룹의 中間 法階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스님 그룹과 재가불가 사이에 적절한 法階를 제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찰 경영, 사회봉사, 생활불교 顯揚 등의 현실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중간 법계자들에게는 ‘傳法師’, ‘보살’, ‘善知衆’ 등의 法稱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III. 바람직한 在家 불교운동의 방향

(1) 組織的 提高 : 한국의 在家 운동은 사찰 단위의 신도회 中心的 색채가 강하다. 아울러 그 조직 운영 또한 영세하고 무계획적이나, 재정적으로 독립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회비제 납부의식의 결여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예산집행에까지 독립적인 형태를 갖는 일이 필요하다.

(2) 의식향상 : 사찰을 불공드리는 곳으로만 인식하는 데에 문제가 尙存한다. 오히려 修道的 도량, 인격도야의 연마장이라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물론 이 점은 사원 기능의 활성화와 관련을 맺고 있지만 재가신자들의 의식수준과도 깊은 관련을 지니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재가불자들의 意識 高揚이 사원 기능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3) 종단의 관점과 행정적 지원 : 한국 최대의 종교 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끊임

없는 내분에 시달려 온 바, 그 간접적 영향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佛敎 人力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총무원의 임무여야 한다. 法階의 수여, 수련장의 개방, 生産佛敎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현실 속에 불교를 적용시키려는 다양한 방법의 講究 : 예컨대 호스피스 교육, 火葬 등 납골당 운영을 통한 국토 이용 계획, 청소년 교화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재가 불교교육은 '敎育爲主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불교적 원리의 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5) 불교학의 진흥 : 盲信과 狂信으로 대변되는 일부의 종교현실을 극복하려는 재가 불자들의 노력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경전읽기'를 생활화하고 한국불교의 사상적 특성을 다각도에서 조명해 나가야 한다.

IV. 맺는 말

현대한국의 재가 불교운동은 1960년대 이후 서서히 태동했다. 사회 격변기 속에서 불교를 통한 사회 교화의 가치를 내걸고 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빈곤, 이념의 결핍, 재정적 영세성 등으로 그리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불교 교양대학이 본격적으로 생겨나는 시기부터 불교 재가운동은 크게 신장된다. 특히 在家法師들의 활약은 큰 밑거름이 된다. 그들은 불교 지상화의 가치와 함께 생활불교의 현상이라는 면에서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 봉사 활동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관념적인 불교인이 많다는 反證이며, 동시에 사회화의 인식이 빈약하다는 뜻이다.

미래의 재가 불교운동은 첨예한 사회적 문제에 불교적인 방법의 대응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리라 예측한다. 이때의 과제는 불교적 아이덴티티의 확립이다. 미래의 재가 불교운동은 僧伽 이상의 재정립을 통한 '보살불교'가 되어야 한다. 보살불교란 대승적 불교이념의 現前化를 의미한다. 내면적으로는 부처라는 이상향의 인격을 가다듬는 수련이며, 외면적으로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여러 잡음과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 불교운동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재가불교의 역할은 보다 증대될 것이며, 승단에서의 위상 또한 제고될 것이 확실하다. 다만 불자의 자기확립을 위한 제도적·이념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재가윤리헌장' 등의 반포와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